



주님 탄생 예고 | 이남규 루카, 레드케임 기법, 180x140cm, 1983년, 대전 성모초등학교

## 입당송 |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 제1독서 | 2사무 7,1-5.8ㄷ-12.14-16

## 화답송 | 시편 89(88),2-3.4-5.27과 29(◎ 2-참조)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 제2독서 | 로마 16,25-27

## 복음환호송 | 루카 1,38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복음 | 루카 1,26-38

## 영성체송 |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24일은 연휴의 한가운데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내일도 성당에 가야 하는 날 중의 하나입니다. 본당에 있으면서 신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들었습니다. “신부님! 성탄 전야 미사 나왔으면 성탄절 미사 안 나와도 됩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대답해 드립니다. “어제 식사하셨으면 오늘 식사 안 하십니까?”

매일의 미사를 한 번만 빠져도 크게 괴로워하며 계속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사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미사 중 하나이고, 예수님의 구세사 시작인 성탄 미사를 앞두고 왜 이틀 연속 미사를 나와야 하는지를 반문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대축일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생파(생일 축하 파티)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 당사자도 없는데 당사자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일은 시골벽적하게 축하해 주면서 왜 예수님의 생일을 이틀 연속 축하해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입니까? 사람들은 오늘 밤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오늘 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밤을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원래 올 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 하루 안에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단지 구유 경배 예물에 봉헌할 봉헌금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늘 밤이 정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같은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 깨어 있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없습니다. 한 번 매일미사 책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성탄 전야 미사와 성탄절 미사가 뭐가 다른지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왜 교회가 미사를 두 번 하는지 아실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두 번의 미사에 꼭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루카 1,38)

성전은 하느님이신 빛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유리를 깨지 않고 통과하는 빛의 그림으로 성모님의 잉태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어 새로운 사물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 삶에서도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순종하는 노력이 늘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 너는 혼자가 아니야

청년들의 고독사를 다룬 뉴스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옛날엔 막연히 ‘딱한 일이네.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며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짧은 화살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나는 사목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퇴소한 청년 중 누군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근심이 몰려옵니다.

작년 초에 연락이 두절됐다가 5월의 끝자락에 홀로 점검으로 발견된 요셉이 설마 설마 했던 근심을 현실로 대면하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키워주신 수녀님에게 찾아오겠다는 전화만 해놓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터라 수녀님은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셉과 친분이 있었던 요셉의 후배와 함께 예전에 요셉이 자기 직장이라고 알려줬던 충남 홍성의 축산 농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원 기숙사에서는 요셉이 연초에 벌써 말없이 회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를 키워주신 수녀님을 만나러 왔던 순한 요셉의 평소 모습과는 사뭇 달라 너무 낯설었습니다. 전에 요셉이 제게 자기 장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비교적 진지하고 성실한 친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요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평소에 솔직하게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아쉽습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소식도 없이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에 맞춰 화장되었을 것이고, 그의 유해는 정해진 장소에 흩뿌리는 식으로 산골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자란 양육시설 ‘꿈나무마을’로 연락이 왔고, 경찰은 시신을 인도받을 것인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인수 의사가 없으면 시신은 무연고 장례로 처리될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을 키운 선생

님들은 그의 시신을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양육시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도 요셉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을 하나 빌렸고, 빈소에 올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장례는 시신을 인도받은 날부터 삼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녀갔습니다. 장례식장에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오는 것은 정말이지 진풍경이었습니다. 요셉의 장례식장을 찾은 청년들은 작은 정성을 모았고, 후원자분들도 요셉의 장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꿈나무마을에 파견된 예수회원들도 요셉을 정성껏 떠나보내고자 노력했고, 특히 장례미사와 화장, 유해 봉안까지 전 일정을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요셉을 보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요셉에게 외롭게 떠났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 | 예수회원, 꿈나무마을 공동체

**아이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것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대립 성탄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예네딕토 16세 교황님), 1978년 성탄 강론에서, 하느님께서 아기가 되신 사실에는 성탄의 중요한 요소인 호의와 열린 마음의 필요성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시며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 신앙 감각! '어떻게 저걸 알까?'



최현순 테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종종 “신학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분들은 배움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며, 연세가 많을 수도, 혹은 어릴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직관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말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부합하거나 혹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지요.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러한 직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신앙감각(sensus fidei)’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사실 매우 오래전부터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왔습니다. 우선 이 말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을 파악하고 그에 동의하며, 잘못된 것을 배척하도록 해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지닌다. 이러한 초자연적 본능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친교 안에서 받은 신앙의 은사와 본질적으로 결합된 신앙 감각이라고 불린다.”(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감각》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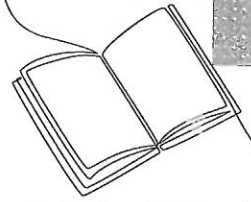
신자들이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앙에 동의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잘못된 것은 배척하는 본능을 가진다는 주장의 근거는 우리가 세례 때에 성령의 도유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요한 14,17), 그리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6,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감각에 대한 가르침은 세례를 받은 모든 이는 성령의 도유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진리이며 무엇이 신앙의 삶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신앙감각을 가졌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에 대해 저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봐도 될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할 당시, 루터는 우리가 성령의 도유를 받았고, 따라서 진리에 대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교도권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루터가 생각하는 교회는 가톨릭교회와 함께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까지 거의 400년 동안 신앙감각에 대한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단어가 생소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앙감각은 성령의 선물인데, 그렇다고 어떤 물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갖는 본능, 직관, 능력이어서 성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더 예민하게 발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말이지요. 물론 그러한 성장 또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움직임에 협력해야 하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마치 돌보지 않는 식물이 시들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듯이, 신앙감각은 왜곡되거나, 점점 흐려질 수도 있고 심지어 있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감각은 식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성장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 로마 입성과 복음 선포 (27,1-28,31)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은 바오로의 로마를 향한 여정과 바오로가 그곳에서 복음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대체 로마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로마는 단순한 도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가 로마로 향한다는 것은 세상 땅끝에 복음이 선포되고 세상의 중심에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의 마지막 로마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니다. 폭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고 난파되어 몰타섬에서 뱀에게 물리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구원은 바오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로마를 향한 항해는 계속됩니다. 또한 배가 난파되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바오로는 두려움보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확신에 찬 바오로의 태도는 로마에서 증거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을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힐 수 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바오로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난파된 바오로 일행은 몰타라는 섬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은 바오로의 기적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는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도 않았고, 여러 섬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는 권한을 주셨다.”(루카 9,1)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제 바오로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부활

하신 주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의 역할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로마를 향해 길을 나섰고, 그곳에 도착해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저 바오로가 만 이 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지내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는 글로 끝을 맺습니다. 황제 앞에 서고, 스페인 여정을 거쳐, 순교까지 하게 되는 로마 도착 이후 여정을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미완의 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목적은 바오로의 생애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세상 끝까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하고자 합니다. 미완의 글은 선포의 사명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각자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바오로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남겨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미완이 아니라 이 글을 읽은 우리를 통해 현재진행형이 되며, 우리가 채워가야 할 몫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 선포의 여정,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 전합시다.”라는 선포를 흘려듣기보다는 복음 선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오로 이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 그날이 올 때까지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정진 가브리엘 | 하늘땅물벗 '송파벗'



2023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  
한 기도의 날에 정  
순택 베드로 교구  
장님께서 특별 사

목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를 반포하셨습니다. 교구장님께서서는 이 교서에서 본당 실천 사항으로 '생태환경분과' 및 '하늘땅물벗'의 설립,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하늘땅물벗' 운동 참여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늘땅물벗'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생태 사도직 단체로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서 설립한 교구 인준단체입니다. 또한 인천 교구와 제주교구에서도 인준 받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하늘땅물벗 '송파벗'

송파동성당의 하늘땅물벗, '송파벗'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으로 생태영성을 배우고 생태 회복을 위한 실천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창조 시기(9월 1일~10월 4일)에는 창조 시기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매일 《찬미받으소서》 각항 내용과 그날의 실천 사항을 카톡으로 구역장님과 반장님들을 통해 전체 신자분들과 나누며 창조 시기

를 뜻깊게 보냈습니다. '송파벗' 회원 중에는 '우리농' 활동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농 농산물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이자 '푸드 마일리지(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적은 로컬 푸드이기에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식단에서 육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식품의 탄소발자국(식품의 생산·가공·이동·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정화에 탁월한 이엠(EM) 농축 발효액을 만들어 무인 판매대를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 송파동성당에서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가 거행됩니다. 미사 중에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각항을 낭독하고 피조물 보호를 위한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칩니다. 또,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의 찬가'를 기도문으로 봉헌합니다. 경탄스러운 하느님 찬가를 바치면 감사의 마음이 벅차옵니다. 강복 시간에는 장엄 강복으로 신부님께서 우리의 JPIC(정의·평화·창조 질서보전)의 삶을 축복해 주

십니다. 미사 후에는 5분 정도의 짧은 교육 영상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달의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찬미 받으소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익과 성장에만 집중하는 현대 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의 문명(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 가지 못합니다."(244항)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아낌없이 내어 주라고 권유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 주님, 찬미받으소서!" (245항)

'하늘땅물벗'이 모든 본당에 설립되고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들이 늘어나 "하늘나라에 있는 공동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243항)에 희망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숨은 하느님 찾기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영성과 심리’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영성은 곧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삶이며 따라서 각자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몰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말뜻을 잘 몰라도, 이미 영성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까요.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영성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알든 모르든, 혹 때로는 하느님을 잊어버리더라도 어쨌거나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이것이 영성생활의 기본입니다. 둘째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것’, 셋째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식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영성이 무언지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지금 나의 상태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바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로마 8,5-17 참조)

그런데 이렇게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 마음이 뜻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 중에 자주 만나게 되는 걸림돌이 바로 죄책감과 죄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죠.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숨게 만드는 그릇된 죄책감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다가

가게 만드는 건강한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의 움직임 자체’와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 자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별을 잘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요.

한 해 동안 주보에 연재했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나누어 드린 글이 여러분이 영성을 살아가시는 데에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아직도 영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영성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드시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영성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시면 더 그러하시죠.

올해 영성 생활을 잘 못하며 살아왔다고 자책하기 보다, 지나간 시간, 기억나는 사건들 안에 늘 계셨던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분명 나와 함께 계셨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행복을 바라셨던 숨어 계신 하느님을 더 많이 만날수록, 우리 마음에는 감사함이 저절로 우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저의 하느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당신 이름에 영광을 드리렵니다.”(시편 86,12)

상단 QR코드(아코드를 통해)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12월 25일(월)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리고자 구유 경배와 함께 밤, 새벽, 낮에 세 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밤 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봉독합니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TV · 라디오 성탄 미사 생중계

명동대성당 밤미사	12월 24일(주일) TV 23시 45분 · 라디오 24시
명동대성당 낮미사	12월 25일(월) TV · 라디오 12시
바티칸 밤미사	12월 25일(월) TV 3시 20분

###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사승환 신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점) 국내수학	면직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7년 12월 27일 정치윤 이나시오 신부(59세)
- 2011년 12월 26일 이계광 세레자 요한 신부(90세)
- 2022년 12월 27일 백민관 테오도로 신부(95세)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 봉헌 요청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 동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이스라엘 주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구의 모든 본당은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까지 매 미사 전이나 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2월 31일 송년 미사 전 평화를 위한 성체조배 혹은 묵주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 교구청 알림

#### 2024년 월요성경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12만원(연회비) / 문의: 010-8889-5425 (문자)

#### 2024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1월12일(금) 오후 2시, 대성당 / 문의: 02)774-1784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종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계좌이체 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교구 및 본당행사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2월28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UN 농민 권리 선언'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문의: 02)2068-7066

#### 서울대교구 시니어카리타스합창단 단원(남녀) 추가모집

대상: 성가대 경력이 있는 만 60세~75세  
연습: 매주(금) 13시30분~15시30분  
곳: 범우관 702호(명동성당 내 위치)  
문의: 010-3323-3777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신년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2024년 1월4일(목) 오후 2시~3시  
곳: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가톨릭청년미술가회 정기전: 전관  
전시일정: 12월23일(토)~2024년 1월4일(목)

####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4년 1월6일(토)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접수(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벽 본당’ 미사)  
때, 곳: 1398차 미사 12월2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안주 본당, 정주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벽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원서접수: 2024년 1월3일(수)~6일(토) 인터넷 접수  
문의(입학):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인문단체 알림**

**모임**

**2024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내용: 새해맞이 성모님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성체거동  
대상: 가톨릭 청년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때, 곳: 2024년 1월6일(토) 15시~18시,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서울성모병원)  
회비: 1만원 / 예약 계좌: 국민 794001-04-122952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2024년)**

문의: 010-7374-3217

4월15일(월)~26일(금)	루르드·스페인·파티마 / 회비: 505만원
6월7일(금)~15일(토)	이스라엘 / 회비: 465만원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 원독	2024년 1월5일(금)~13일(토), 2월16일(금)~24일(토)	문의: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II	12월27일(수)~29일(금)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2차	12월29일(금)~2024년 1월6일(토)	문의:
제123차	1월19일(금)~27일(토)	061)373-3001, 010-3540-9001
제124차	2월9일(금)~17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신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눈꽃산행	2024년 1월20일~22일, 1월26일~28일, 2월2일~4일, 2월17일~19일, 2월25일~27일
성지순례(추차도)	3월21일~24일, 4월2일~5일
자연순례	3월10일~12일, 3월16일~18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2024년 1월20일(토)~21일(일), 2월24일(토)~25일(일)
3박4일	1월11일(목)~14일(일), 2월15일(목)~18일(일)
8박9일	12월26일(화)~1월3일(수), 1월29일(월)~2월6일(화)
40일	4월11일(목)~5월20일(월)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후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  
회비: 120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2024년 1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송구 영신 철야 기도회**

때, 곳: 12월31일(월) 21시30분~1월1일(월) 4시(미사·안수 있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12월26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양창우 신부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024년 1월5일(금)~8일(월)·1월26일(금)~29일(월)·2월16일(금)~19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일철야기도회**

강사: 김성대 신부 / 율동, 찬양, 고해성사  
때, 곳: 12월29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 하차 / 문의: 010-3242-6868

**살레시오회 피정**

1)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 문의: 02)828-3522  
때, 곳: 수시,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2) 2024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 문의: 010-6221-3520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 12월31일까지 접수  
때, 곳: 2024년 1월19일~21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눈꽃산행 2024년 1월12일~14일·1월19일~21일·1월27일~29일·2월3일~5일·2월14일~16일·2월23일~25일·2월27일~29일, 3월1일~4일(추차도)·3월8일~10일·3월13일~16일(추)·3월18일~20일·3월23일~26일(추)·4월11일~13일·5월2일~4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이론강습-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기**

곳: 뚜렛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주최, 돈암동)  
문의: 010-6746-1997 (문자)

**노들담몬테소리교육**

내용: 몬테소리교육 개인지도  
대상: 생후 18개월부터(영어)  
곳: 노들담수녀회(성북동)  
문의: 010-6645-3114 노들담몬테소리학교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2024년 1월8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새천년복음화학교 개강(150기)**

때: 2024년 2월21일(수) 14시·3월7일(목) 10시  
곳: 가톨릭회관 5층 복음화학교 교실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2024년 전기 2차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문화영성학과(석사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12월18일(월)~1월14일(일) / 면접: 1월16일(화) 18시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울 반포)  
문의: 02)3147-8787(http://gcs.catholic.ac.kr)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2024년 1월~2월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1월2일(화)~3일(수) 강좌별로 상이함  
주2회(문법·회화) 총 30시간, 8주 / 회비: 32만원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cc.sogang.ac.kr)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2024년)**

곳: 프살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아 선교회부설(주최) / 02)941-1880(learning4@daum.net)  
오전반 1월10일(수) 11시 저녁반 1월9일(화) 19시30분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문의: 02)333-9898 한국CLC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2024년 1월30일~3월5일 매주(화) 10시 30분~19시40분 (6주), 한국CLC 강의실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	2024년 1월29일~3월11일 매주(월) 10시30분~19시40분 (6주), 실시간 Zoom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4년 1월16일(화)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 (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등) 맞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1월 개강, 각 6주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학	신유박해를 바라보는 여섯가지 시선	소진형 박사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귀환시대	주원준 박사
수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배영길 신부
목	수도사들의 화가 수르비란의 미술로 살펴보는 가톨릭 영성과 신심	김현직 신부
금	요한 신부와 함께 읽는 요한복음	김민 신부
금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번재 길	최지원 수녀

**가톨릭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회화교실**

원어민 영어회화교실 초급·중고급반 모집  
 때, 곳: 주1회 2시간, 가톨릭회관(명동) 513호  
 회비: 3개월 15만원(연회비 별도) / 문의: 02)778-7543

**가톨릭성서모임 독서클럽 '불멸의 화가 카라바조'**

저자에게 직접 듣는 '카라바조'와 그의 미술세계  
 강사: 고종희 교수(한양여대 명예 교수)  
 접수: 홈페이지(biblemove.com) / 문의: 02)824-4363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4년 2월16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모집**

**시스피나 남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서초동성당 헬름 오케스트라 콰이어 전공자 모집**

대상: 편곡, 현악기, 관악기, 성악 / (일) 21시 미사  
 접수: cafe.naver.com/caelumorch / 010-3358-2213

**새남터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모집**

순수 봉사 / 대상: 성가 봉헌할 남성(청년) 단원 환영  
 연습: 매주(일) 교중미사(11시) 전후 1시간씩(10시~13시) / 문의: 010-5470-6773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녀 테레사 베네딕타 회원 모집**

문의: 010-9098-6765, 010-4189-8396  
 대상: 가르멜 성인 성녀들의 영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 교우 / 2024년 2월14일까지 접수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문의: 02)727-2056  
 때, 곳: 12월27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12월28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2월26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문의: 02)548-3623  
 때, 곳: 매일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 /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문의: 02)3142-4434  
 때, 곳: 12월29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12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2월27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송년 감사 미사**

집전: 구요비 주교 / 문의: 02-3147-2402  
 때, 곳: 12월31일(일)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국내임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돈보스코 심리발달연구소**

전문심리상담기관 / 문의: 02)828-3685  
 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여성, 진로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현상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노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15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활동운영팀 /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2024년 1월12일(금)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H2빌 관리인(청구직) 모집**

소방안전관리자(2급), 사용시설안전관리자 등 시설관리 및 15인승 차량 운행 기능자  
 곳: 전철 5호선 방화역 인근 / 문의: 02)6925-2366

**한마음한울운동본부(영통법집) 직원 모집**

분야: 주방조리 및 배식 / 자세한 내용,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은 가톨릭 굿뉴스 홈페이지-계시판-홍보마당-구인·구직 참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목5동성당 직원(야간)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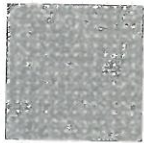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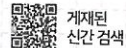
문의: 02)2644-1100  
 업무: 시설물 관리, 미화, 방호 업무 / 대상: 세례받은 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민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팩스(02-2644-9100) 접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영어 통역 가능한 분  
 업무-인원: 이주노동자 상담 및 행정 업무 담당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민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2024년 1월14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서울 본원	010-3551-587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인격과 존재**

노리스클라크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67쪽 | 1만4천원  
문의: 02)740-9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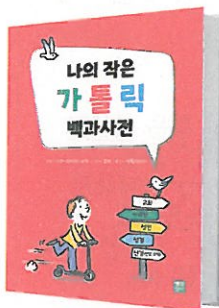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주장하는 '창조적 회복과 완성'의 형식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격 이해를 현대의 여러 철학적·인간학적 도전에 답하며 재구성한 작품이다. 인격을 향한 우리의 철학적 작업이 궁극적으로 '나 혹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와 당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배려로 결실을 맺는 철학적 사유의 여정이 될 것임을 보여주려 한다



신간  
**유쾌하게 설레게**

이재근 지음  
바오로딸 | 208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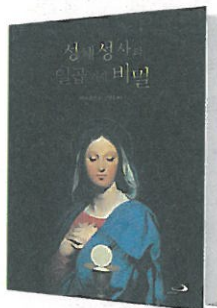
이 책에는 한 사제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의 일화들, 사제로 살아가면서 체험한 것들, 동기 신부들 간의 끈끈한 우정 등을 그렸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서도 하느님 안에서 성실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열정과 유머를 담았다.



신간  
**나의 작은 가톨릭 백과사전**

마라크리스틴 비달 지음  
생활성서사 | 160쪽 | 1만8천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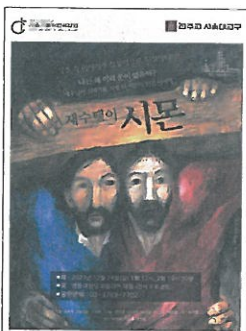
아이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가톨릭 백과사전! 하느님과 성경, 전례, 교회, 기도, 사랑의 실천 등 백여 가지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 주는 신앙생활 가이드북이다. 예쁜 그림과 쉬운 설명, 유익한 활동으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배우며, 튼튼한 신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간  
**성체성사의 일곱가지 비밀**

비니 플린 지음  
성바오로 출판사 | 144쪽 | 1만2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이 책의 저자는 성경을 포함해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교황님 훈화 말씀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인용하며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성사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준다.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현존에 관한 저자의 개인적인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성체성사의 비밀들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자라나게 된다.



가족극  
**재수탱이 시몬**

공연: 12월 24일 17시·19시·30분, 파밀리아채플  
무료 공연(좌석 예약은 미리 신청)  
문의: 02)3789-7702

살아가 너무 힘들어 고향을 떠나 유다 땅에 정착하여 하루 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유대인, 키레네 사람 시몬.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그의 이야기를 담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다.



콘서트  
**산울림 편지콘서트 <쇼팽, 블루노트>**

입장료: 전석 4만원  
문의: 02)334-5915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산울림 편지콘서트>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연 예술의 성지 '산울림'의 겨울 대표 레퍼토리 공연으로 불멸의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을 클래식 라이브 연주와 드라마를 통해 재조명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산울림 편지콘서트 - 쇼팽, 블루노트>는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소극장 산울림에서 공연된다.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흠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 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성탄 미사	일시	미사 시간
	12/24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 (주일미사) <b>오후 8시 (성탄 밤 미사)</b> -대성전, 소성전(주일학교, 청년)
	12/25 (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6시

\* 성탄 밤 미사 후, 지하식당에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뻐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일시	미사 시간
	1/1(월)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6시

◎ 박진호 사도요한 보좌신부 영명축일 축하식

일시 : 12월 24일(주일) 11시 미사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전입 교우를 환영합니다 (11월~12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곽성환	라파엘	2-4	윤영록	베로니카	3-3
황덕현	예로니모	5-2	양채원	마틸다	6-2
김규리	헬레나	7-1	정혜운	루피나	7-5
임채상	베드로	7-5	서봉현	F.하비에르	9-4
이선민	크리스티나	11-3			

◎ 전입 교우 환영식 : 12월 24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여성울뜨레야 : 12월 26일(화) 10시미사 후 304호

◎ 2023 성탄맞이 연희성당케이크 판매 안내

- 총 제작수량 : 150개(수량 소진시 조기마감)
- 판매금액 : 20,000원 (개당)
- 판매 장소/시간 : 연희성당 마당  
- 12/23(토) 오후 초등부 성탄제 후  
- 12/24(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저녁 9시~10시  
- 12/25(월) 오전 미사 후
- 문의 : 자부회장 (010-8519-7556)  
주일학교분과장 (010-8972-4012)

◎ 연령회 미사

일시 : 1월 2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모신심미사 : 1월 6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1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판매합니다.

일시 : 12월 30일(토) 오후 3시 ~ 31일(주일)

가격 : 떡국떡(1.8kg) 10,000원  
만두(김치/고기) 15,000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무금 책정자 변경을 12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2. 1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28	862 (42.5%)	832 (41%)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정순조 안나 상가 ..... 삼십만원

◎ 감사헌금 (12월 11일~17일)

익명 ..... 일십만원      관석모 ..... 오천원  
익명 ..... 이만원      익명 ..... 일십만원  
안성빈 ..... 이십만원      김우희 ..... 오만원  
문지원 ..... 일십만원      이정훈 ..... 일십만원  
홍동수 ..... 일십만원      박경식 ..... 이십만원  
김현수 ..... 오만원      함영동 ..... 일만원  
고희승 ..... 일십만원      권기복 ..... 이십만원  
김인기 ..... 일십만원  
십자가의성요한재속회 .....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대림 제3주일)

교무금 ..... 16,700,000원  
주일헌금 ..... 5,350,000원  
자선주일2차헌금 ..... 2,019,000원

입당	96	봉헌	221, 511, 213	성체	334, 498, 158	파견	92
----	----	----	---------------	----	---------------	----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 하리이다